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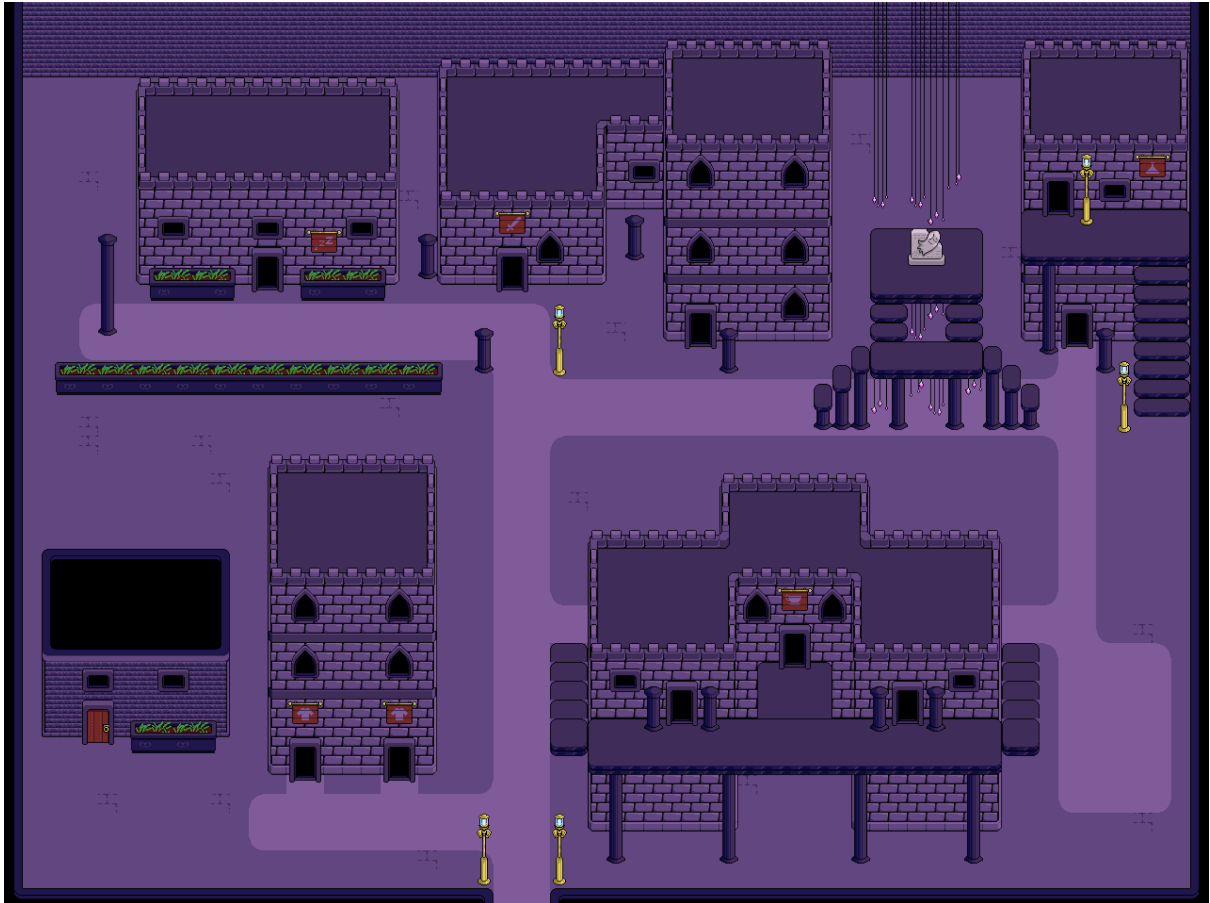
[< 소개로 돌아가기](#)

[< 이전 편](#)

[다음 편 >](#)

옛 집 (폐허) 제 3부 [\[원본 링크\]](#)

파피루스를 따라가면, 그가 프리스크를 옛 집 보라색 구역의 남쪽 우측에 위치한 방으로 안내한다. 이곳은 텅 빈 방이다. 방에 있는 계단을 따라 파피루스가 내려간다. 그를 따라서 계단으로 내려가 골판지 상자과 기타 쓰레기의 무더기를 지나친다. 그 꼭대기에는 발레 신발이 있다.



집의 심장의 개관도 Fours 님의 작품입니다. [플 해상도 이미지](#)

파피루스가 프리스크에게 도시를 안내한다. 괴물이 접근하지는 않지만 할 일을 하다가 이들을 쳐다본다. 잠시 동안 플레이어의 조종 없이 자동으로 걸은 후, 파피루스가 프리스크를 돌아본다.



: 주민들과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지 않아?



: 네게 궁금한 게 많을 텐데.



: ...그런데 말이야, 나는 계속 가는 게 나을 거 같아.



: 특별한 손님에게 진수성찬을 대접하려면 파스타를 좀 준비해야 하니까.



: 물론 그 특별한 손님은 바로 너야!



: 이 도시 끝에 내 집이 있어. 그냥 저 길을 끝까지 따라가면 돼.



: 이따 보자!

파피루스가 달려나가고 프리스크를 조종할 수 있다. 집의 심장에는 다양한 건물이 있지만 지금은 열리지 않는다.

프리스크가 발레 신발을 조사한다.

신발 두 짝을 들자마자 코가 움찔했다.

한때는 꽤 쓸만한 물건인 것으로 보이지만 신발 밑창이 다 닳아 버렸다.

신발을 조금 닦아내자 마음 속에 생각 하나가 비집고 들어왔다.

“선생님께서 이걸 주실 줄이야.

선생님께서 처음 연습하던 신발이라고! 그 모든 사람중에 날 고르셨어!!

약간 닳긴 했어도 바느질 몇 번이면 못 고칠 건 없지.

이제 다들 날 우러러 보겠지!”

...잠깐 땀을 흘리고 나서 신발을 조심스럽게 인벤토리에 넣었다.

(인벤토리 7/8)

프리스크가 말을 걸거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괴물이 도시 전체를 통틀어 몇 마리 있다. 이들은 각각 프로깃 한 마리와 웜슬롯 + 룩스 한 쌍, 미고스프 한 마리, (이 미고스프는 아래쪽 길을 막고 있다), 베지토이드 한 마리, 미고스펠 한 마리, 파스닉 한 마리, 아스티그마티즘 + 웜선 한 쌍, 파이널 프로깃 한 마리이다. 추가로 사당 같은 구조물이 있는데 그 위에 메타크릿의 석상이 있다.

프리스크가 프로깃에게 말을 걸었다.

프로깃: 야옹.

(인간은 상금이 걸린 질문에 답하기를 좋아한다고 읽은 적이 있어.)

(상금을 줄 순 없지만 재미로 한번 해 볼래?)

- 응

* 아니

(됐어 그러면.)

이것으로 대화가 종료된다. 그러나 프리크는 놀고 싶다.

* 응

- 아니

(친절하구나! 좋아, 여기 첫 번째 질문이야.)

(누가 너한테 따끈따끈한 식사를 대접했어. 네 반응은 뭐야?)

* 고맙다고 한다

- 바로 먹는다

(그래. 그래야 예의바른 거겠지.)

(특히나 그게 손수 만든 거라거나 만들기 어렵다면 말이야.)

그 대신에...

- 고맙다고 한다

* 바로 먹는다

(우와, 바로 입에 댄다고? 진짜로 배고픈가 보네!)

(다음 번 식사를 바울 땐 예절을 지키길 바라.)

여기서 장면이 다시 시작된다.

(지금까지는 꽤 재밌었어. 이제 다음 번 질문이야.)

(안 열리는 문을 찾았어. 어떻게 할래?)

* 열쇠를 찾는다

- 문을 부순다

(그게 당연하지!)

(그런데 이제 열쇠가 없거나 네가 급하다면?)

(흠, 나라면 형한테 물어볼 거야.)

- 열쇠를 찾는다

* 문을 부순다

(어, 이런. 누가 집에 있을 때 그러지 않길 빌게.)

(정말로 그러고 싶다면 방 안에 뭔가 중요한 게 있는 거겠지.)

여기서 장면이 다시 시작된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 관찮은 질문이야, 약속할게.)

(과거에 죄를 지었다면 다시 좋은 사람이 될 기회가 영영 사라질 수도 있을까?)

* 응

- 아니

(...흠. 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보고 싶은 거구나.)

(하지만 그거 좀 슬픈 걸.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니.)

- 응

* 아냐

(정말이야? 그러면 넌 두 번째 기회를 보고 싶은 거구나.)

(좋은 사람이었던 옛날로 돌아가는 게 가능할까?)

(...아마 안되겠지. 그래도 노력할 만한 목표긴 해.)

여기서 장면이 다시 시작된다.

(그 마지막 질문은 내 형의 생각이었어. 인간은 놀래키는 걸 좋아한다고 하던데.)

(우와, 이거 사실 꽤 재밌었어. 이제 인간이 왜 이런 걸 좋아하는지 알겠어!)

프리스크가 뎀슬롯과 룩스의 대화를 엿듣는다.

뎀슬롯: 말썽 일으키는 중이죠, 그렇지요?

룩스: (아 망할. 또야.)

아닌데요, 전혀.

뎀슬롯: 허튼 소리는. 소란 일어나기 전엔 항상 당신네들 무리가 보였어.

그 가방 꺼내세요. 어떤 무기가 들어있는지 좀 봅시다.

룩스: 무기라고?! 대체 날 뭐하는 괴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뎀슬롯: 내 동생을 괴롭힌 괴물이라고. 가방이나 주시죠.

룩스: 근위대에 못 들어가는 녀석 치고는 잘도 씨부리네.

뎀슬롯: 너 아-!!

...친절은 이제 끝이야.

가방 내놔. 눈이 한동안 멀고 싶지 않다면.

룩스: 제-제발 해치지 말아 주세요...

프리스크가 아래쪽 길 앞에 서 있는 미고스프에게 말을 걸었다.

미고스프: 우리는 여럿 속의 한 명이다

함께라면 우리는 강하다

혼자라면 우리는 약하다

우리는 함께 살아간다

우리는 함께 생존한다

우리는 살아서 지상을 볼 것이다

프리스크가 베지토이드에게 말을 걸었다.

베지토이드: 이곳은 옛 집에서 사람들이 두 발 뻗을 수 있는 유일한 곳ियो

이곳의 모두는 밤에 모인다네

농장이 있다고 하겠지만 거기엔 음식이 모이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뿐인 식량 공급처가 피해 입는 위험은 감수할 수 없다오

외부의 원조가 극도로 제한된 이 때엔 안 된다오

프리스크가 미고스펠에게 말을 걸었다.

미고스펠: 빵 빵!!

오호호, 전부 괜찮아! 아주 완벽해!

나쁜 일이 없으니까, 낙담할 이유는 없어!

작은 친구야 웃어 봐, 웃는 거야! 해-햇살이 내리는 꿈을 또 볼 거야.

언젠가 우리는 진짜로 해를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계속 웃어!

걱정마, 아주 최고니까!

프리스크가 파스닉에게 말을 걸었다.

파스닉: 괴물들이 이 땅밑에 처음 내몰렸을 때 처음으로 세운 것이 농장과 수로였소

그 다음에는 모두가 살 만한 도시를

그 다음에는 왕실의 집과 “특별한 관심”이었소

그대가 상상할 수 있듯 한정된 공간만을 고려한다면 많은 이들이 행복하지 않았소

왕실은 존경을 받아 보호받았지만 보스 몬스터들에게는 그러한 존경이 덜 주어졌소

그러나 저 길이 열리자 부부 한 쌍이 사람들을 이곳에서 서릿들로 호위하였소

그들은 훨씬 더 쉽게 존경을 얻었고

모타지는 그렇지 못했소

그 자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우리가 지하에 갇히도록 둔 일은 용서받을 수 없을 거요

프리스크가 아스티그마티즘과 워선에게 말을 걸었다.

워선: 아, 음....

아스티그마티즘: 야, 너한테 할 말 있어.

워선: 아-안 그래도 되는데-

아스티그마티즘: 해야겠어.

워선: 어-어, 알았어...

아스티그마티즘: 네 큰 형이 여태껏 우리 가족을 아주 골치아프게 만들고 있거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

웜선: 아니, 전혀.

아스티그마티즘: 그래. 그리고 네 형이 어떤 문제도 안 겪었으면 좋겠고, 응?

웜선: 으응...

아스티그마티즘: 그러면 형 대신 탄막을 맞아도 괜찮겠네.

웜선: ...안돼.

아스티그마티즘: 좋아. 그러면 지금 돈 얼마나 있어?

프리스크가 파이널 프로깃에게 말을 걸었다.

파이널 프로깃: 멍.

(있잖아, 인간은 질문을 사랑한다고 들었어. 아주 아주 많이. 그래서 스포츠 같은 게 되었다고 하던데.)

(하지만 제대로 만들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는 질문도 있지.)

(서릿들로 갈 준비가 되었다면 날 찾아 와. 분명히 눈이 뜨일 거야.)

프리스크가 메타크릿 석상을 조사한다.

“저버린 우리의 별 메타크릿을 추모하며.”

이건... 굉장히 잘 관리된 한 유령의 석상이다. 유령은 엑토플라즘 피부가 과도하게 자라 눈을 덮고 있다. 관리가 잘 되었기 때문에 석상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가늠할 수 없다.

프리스크가 집의 심장을 떠나고 파피루스의 집으로 가는 길로 방향을 틀었다. 벽돌집 앞에는 구획이 나뉜 작은 텃밭이 있고 거기에 밀이 자라고 있다. 그중 한 구역에 세이브 포인트가 있다.

프리스크가 여기로 들어올 때 파피루스는 텃밭을 살피고 있었다. 잠시 후에 머리에 느낌표가 뜨면서 프리스크를 뒤돌아본다.



: 환영해 인간, 여기는-



: ...어, 내 집이야.



: 가장 대공다운 거주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꽤 살만하다고는 말할 수 있어.



: 들어와, 네가 실 방을 마련해 놔어.

프리스크가 텃밭을 조사한다.

어쩐지 이 텃밭에서 자라는 밀은 음식을 만들기엔 부족해 보인다.

혹시 보여주기 용일까?

프리스크가 밭밭에 있는 세이브 포인트에 접근해서 저장한다.

이삭에 스치자 코가 간질거렸지만 재채기를 참으려고 했다.

온통 돌뿐인 이곳과 대비되는 식생을 보자 의지가 차오른다. 그러나 당신은 재채기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코를 비볐다.

프리스크가 집으로 들어간다. 파피루스가 그 뒤를 따라간다. 적갈색으로 칠해진 안방의 바닥은 나무로 되어 있다. 대문 앞에는 환영의 의미로 매트가 놓여 있고, 방에 홍곽을 본떠 만든 장식용 탁자가 보인다. 집의 동서남북에는 입구를 포함해서 문이 하나씩 나 있다. 특히 입구와 반대편에 있는 문에는 뼈 모양을 새겨 놓았다.



: 바로 이쪽이야 인간. 네 식사가 기다리고 있어!

파피루스가 오른쪽 방으로 들어간다. 프리스크는 다른 문으로 가거나 탁자를 확인할 수 있지만...



: 왜 그래 인간, 그러면 음식이 식어버릴 거야!

프리스크가 주방으로 들어간다. 마루의 한 쪽은 나무로, 다른 한 쪽은 타일로 되어 있다. 나무 바닥 쪽에는 뼈가 그려진 양탄자와 책장이 있다. 타일 바닥이 있는 다른 쪽에는 조리대와 가스레인지/오븐, 싱크대, 냉장고와 의자 두 개가 딸린 탁자가 있다. 프리스크가 들어오자 파피루스가 오븐 앞에 서 있다.



: 이제 자리에 앉아서 마음의 준비를 해.



: 이걸 여태까지 만든 파스타 중에 최고거든!

말을 듣는 대신 파피루스에게 말을 걸려고 하면.



: 이런, 식사는 탁자에서 한다는 거 알잖아, 그렇지?



: 저기 있는 나무로 된 네발 달린 거 말하는 거야. 좀 작은 네발 달린 거 위에 앉자.



: 괜찮아, 천천히 해.

그 대신 무엇이든지 확인하려고 하면.



: 안돼!!!



: 인간, 그건 못 먹어!



: 그만 해, 내 명작이 그것보단 훨씬 나아.

프리스크가 가장 가까운 의자에 다가가 앉는다. 파피루스가 클로슈(cloche)¹를 들고 걸어와서 프리스크 앞에 놓는다.



: 보시라!

파피루스가 클로슈를 제거하자 라비올리(ravioli)²가 한 가득인 접시가 드러난다.



: 내 최근 작품이야, 널 위해 만들었지, 인간!



: 최근 나온 요리책을 살살이 뒤졌더니 이 파스타가 한가득인 혼합물을 손에 넣을 수 있었지.



: 게다가 위대하기까지 해! 뜯들이지 말고 꺾 먹어 봐.

프리스크가 포크를 들어 한 입 먹어 본다. 그러자 몸을 떠는 게 눈에 보인다.



: 나도 알아. 맛이 정말로 풍부하지. 천천히 먹어.

¹ 음식을 서빙할 때, 식기를 덮는 종 모양의 덮개. [이렇게 생김.](#)

² 만두 모양을 한 파스타의 일종. <https://en.wikipedia.org/wiki/Ravioli>

이 식사는 확실히 일종의 체험이다.

그릇을 비우기까지는 조금 걸렸지만 간신히 라비올리 한 조각만 남기고 다 먹는 데 성공했다.

파피루스가 안 보는 동안 슬쩍 주머니에 넣었다. 강철같은 비위를 가진 자가 나타나서 이것을 해치우겠지.

(인벤토리 8/8 가득 참!)



: 인간, 이제 우리는 유대감이 생길 정도로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어.



: 너는 날 알고, 나는 널 알아.



: 그리고 너라면 분명 이 시간이 지난 다음 무엇이 다가올지 알겠지.



: 그래. 새롭게 친구가 되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할 차례야!



: 바로 작별이지.



: 맞아. 넌 여기 계속 있을 수는 없어.



: 바깥쪽 길은 드리머어 가로 통해.



: 원한다면 내 방에서 쉬어도 되지만 너무 오래 있지는 마.

파피루스가 출구 쪽으로 걸어가다가 다시 한번 뒤를 돌아 본다.



: 기다리고 있을게.

파피루스가 떠난다. 프리스크는 자유롭게 주변을 둘러볼 수 있다. 인벤토리를 열어서 새로 얻은 물건을 살펴본다.

인벤토리: 기억하는 사탕, 거미 쿠키 x 2, 거미 도넛 x 2, 오래된 발레복, 발레 신발, 파피올리

-아이템 > -정보 > 거미 쿠키

“거미 쿠키” - 4 HP 회복

설탕 중독인 당신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한 입이나 두 입짜리 맛있는 쿠키.

-아이템 > -정보 > 거미 도넛

“거미 도넛” - 12 HP 회복

이 폭신한 도넛은 반죽에 거미 소주가 들어가서 부드러운 질감이 생겼다.

-아이템 > -정보 > 오래된 발레복

“오래된 발레복” - 장갑 DEF 3

적어도 반창고 보다는 잘 보호해 주나... ?

-아이템 > -정보 > 발레 신발

“발레 신발” - 무기 ATK 3

새것이든 낡았든, 무대 위에 올랐든 아니든 간에, 이 신발은 비극을 일으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아이템 > -정보 > 파피올리

“파피올리” - ??? HP 회복

내용물은 의문스러우나 애정이 섞여 들어갔다.

프리스크가 소스가 든 접시를 조사한다.

의외로 이... 혼합물을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이킬 수 있었다.

당신의 위장이 나중에 그 대가를 치르지 않길 빈다...

프리스크가 오븐을 조사한다.

아직도 약간 뜨겁다. 건드리지 않게 조심하자.

파피루스는 불 마법을 쓰지 않으므로 이것이 차선책이다. 오븐도 거의 익었다.

프리스크가 냉장고를 조사한다.

파피루스의 ‘명작’ 파스타에 넣을 실험적 양념을 담은 다양한 용기가 들어 있다.

용기 하나를 꺼내서 냄새를 맡자 그 즉시 당신의 선택이 후회된다.

뚜껑 닫아서 원래 있던 자리에 두자!

프리스크가 싱크대를 조사한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파피루스는 그래 봐도 청결에는 굉장히 철저하다.

프리스크가 책장을 조사한다.

다양한 책으로 가득 찬 컬렉션이다.

눈길을 사로 잡는 게 있나?

* 클립으로 고정한 종이 묶음

- “성년기 전의 정신 건강”

- “괴물의 특성: 우리는 무엇으로 위대(들)해지는가 제 1권”

- 빠져 나온 닳은 책

파피루스가 수년에 걸쳐 수집한 레시피를 적어 둔 종이 같다.

대부분 노랗게 빛바랜 각 장 사이사이로 다양한 필체의 손글씨가 쓰여져 있다.

그중 어떤 쪽은 여러 가지 수정펜이나 교정 부호를 일관되게 쓰는 것에 익숙치 않다는 인상을 크게 준다.

다른 쪽에는 글씨 쓰기 연습을 했는데, 이 필체로 중요한 문서를 옮겨 적을 만하다.

그래도 여기 쓰인 것은 모두 글씨에 따뜻함이 느껴진다.

“여기 꼭 껴안고 싶을 정도로 부드러운 해골을 위해 부드럽고 맛있는 선물이 있어!”

“내 팔레트를 넓혀주었으니까 이걸로 네 것도 넓혀주는 거야.”

“네가 시간과 재료를 구해서 이걸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 이걸 먹을 때마다 날 기억했으면 좋겠어.”

...여기서 왠지 좋지 않은 기분이 든다.

- 클립으로 고정한 종이 묶음

* “성년기 전의 정신 건강”

- “괴물의 특성: 우리는 무엇으로 위대(들)해지는가 제 1권”

- 빠져 나온 닳은 책

다양한 증상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아이를 간호하는 방법을 다루는 책이다.

강조된 구획과 여러 종류의 강아지 귀로 뒤덮여 있다.

- 클립으로 고정한 종이 묶음

- “성년기 전의 정신 건강”

* “괴물의 특성: 우리는 무엇으로 위대(들)해지는가 제 1권”

- 빠져 나온 닳은 책

괴물의 각 종족 간 차이를 다루기 위해 제작되는 책의 시리즈로 보인다.

‘해골류’ 절을 펼쳐 보았다.

“이 종류의 괴물이나 그밖에 언드데드의 형상을 한 주민들은 한때 살아있던 걸로 보이지만, 그것은 혼한 오류이다.

다른 괴물이 살아있는 것처럼 이들 역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마법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다.

이들의 가장 혼한 탄막 모양은 다양한 종류의 뼈다귀이다.

뼈다귀를 내던지고, 등뼈로 유인하며, 갈비뼈로... 포기하지!

또한 이들은 움직임에 기반한 마법에 전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마법을 이용하여 이들은 대부분에게 이해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이동한다.

이 괴물 종족 중 가장 악명 높은 자로 현재 우리의 국왕이신 샌즈 대왕님을 꼽을 수 있다.

일부 사항에는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었지만, 전하께서 가라사대 먼저 자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했다.”

기묘한 글쓰기 방식이군.

- 클립으로 고정한 종이 묶음

- “성년기 전의 정신 건강”

- “괴물의 특성: 우리는 무엇으로 위대(들)해지는가 제 1권”

* 빠져 나온 닳은 책

한때는 소중히 다뤄진 어린이 책이겠지만 이제는 거의 헤졌다.

어떻게든 책이 뜯겨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 테이프를 붙여 놓았지만 도움은커녕 방해만 되고 있다.

그럼에도, 빠져나온 쪽은 책이 제모양이라면 확실히 도움이 된다.

프리스크가 주방을 나가 안방으로 들어간다. 장식용 탁자를 조사한다.

모두 알다시피 집을 장식할 때 두 번째로 패셔너블 한 것은 바로 뼈다.

프리스크가 북쪽의 문으로 들어간다. 방에는 레이싱 카 모양 침대와, 그 옆에 덮어놓은 사진이 있는 작은 탁자와, 침대 앞에 온갖 계획으로 뒤덮인 일종의 작업대가 있다. 문 옆에는 작은 강아지용 침대와 그 옆에 밥그릇 한 쌍이 있다.

프리스크가 레이싱카 모양 침대를 조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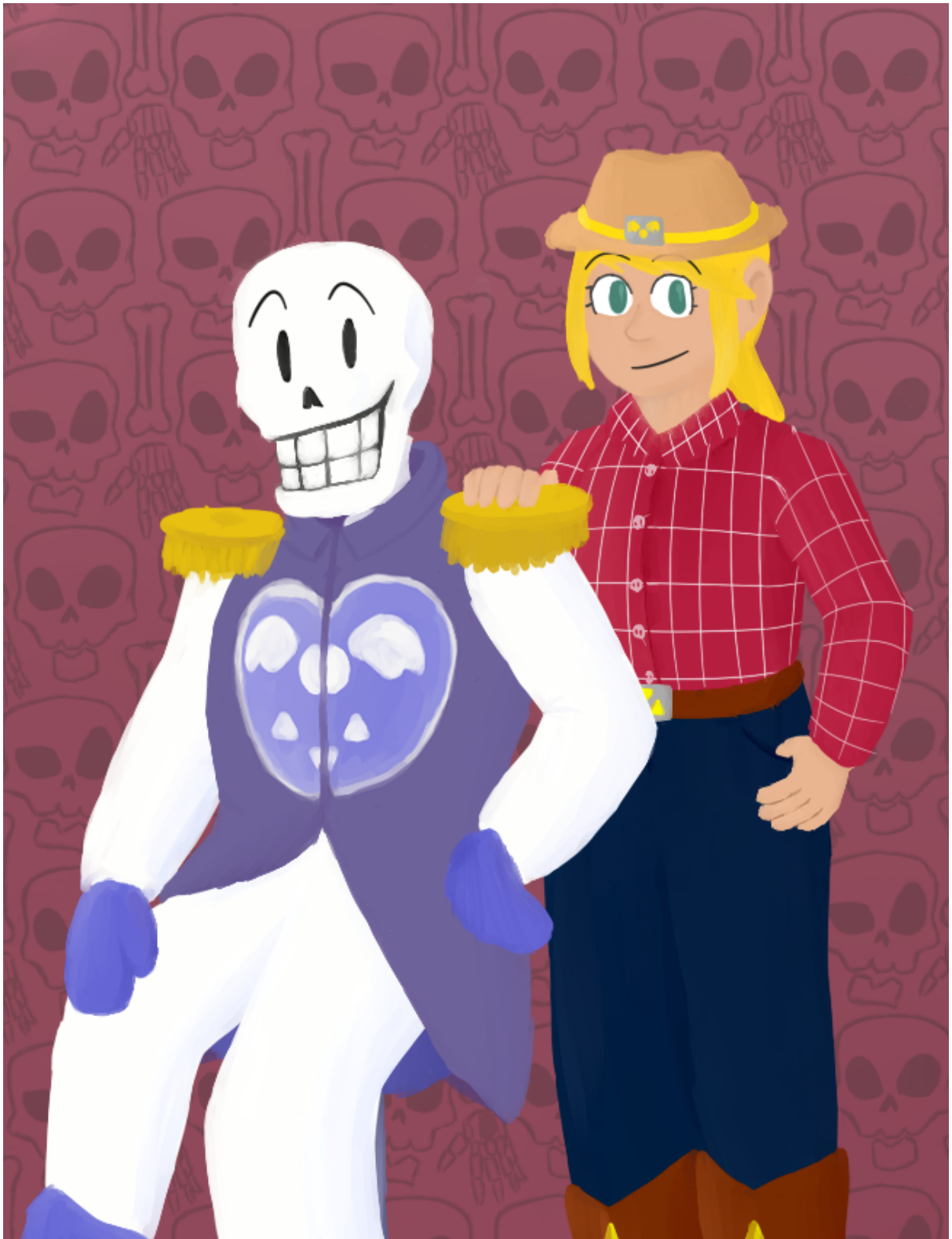
틀림없이 이 방에서 제일 멋진 것이다.

잠깐 자면서 여행하기에는 제격이다.

프리스크가 덮어놓은 사진을 조사한다.

사진을 보지 않는 게 최선이다. 이유가 있어서 덮어놓은 것이다. 호기심이 지나치면 일을 망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만족감이 있다면 그 말은 무효가 된다. 액자를 뒤집어 보았다.



PineappleWithSunglasses 님의 그림

들은... 가까워 보인다.

액자를 다시 되돌려 놓았다.

프리스크가 작업대를 조사한다.

다양한 종류의 퍼즐들로 완전히 뒤덮여 있다.

그중에 거의 대부분은 어떤 형태의 가시를 포함하고 있다. 슬프게도 와닿지 않는다.

프리스크가 강아지 침대를 조사한다.

꽤나 헤졌고 여러 가지 흰 털로 뒤덮여 있다. 여기 사는 개는 분명 눈 좀 붙이기를 정말로 좋아할 것이다.

프리스크가 밥그릇을 조사한다.

파스타와 물로 채워져 있다. 적어도 한쪽은 강아지에게 좋은가?

프리스크가가 파피루스의 방을 떠나고 서쪽에 있는 마지막 방으로 들어간다. 이 방에 들어가자 음악이 조용해진다. 다른 방에 비해서 여기는 이상할 정도로 깨끗하고 물건이 없다. 방에는 침대와 갈색 얼룩이 하나 생긴 벽이 있고 그것이 전부다.

프리스크가 침대를 조사한다.

작은 사람은 위한 작은 침대다.

그런데 누가 쓴다고?

프리스크가 얼룩을 조사한다.

이 얼룩은... 한때 붉었을 것이다, 그렇지?

여태까지 지워지지 않은 걸 보면 어지간히 진하게 물든 얼룩인가 보다...

프리스크가 방과 집을 나가서 집의 심장으로 돌아간다. 아래쪽 길목 앞에 서 있었던 미고스프를 제외하고는 자리를 뜬 괴물은 없다. 미고스프는 옆으로 이동해서 이제 낮잠을 자고 있다.

프리스크가 자고 있는 미고스프를 좌한다. 다음의 대사가 굉장히 느리게 나온다. 한번에 한 글자식이다.

미고스프: 드르러시앤캐시어어엉... (원문: Zzznowflakezz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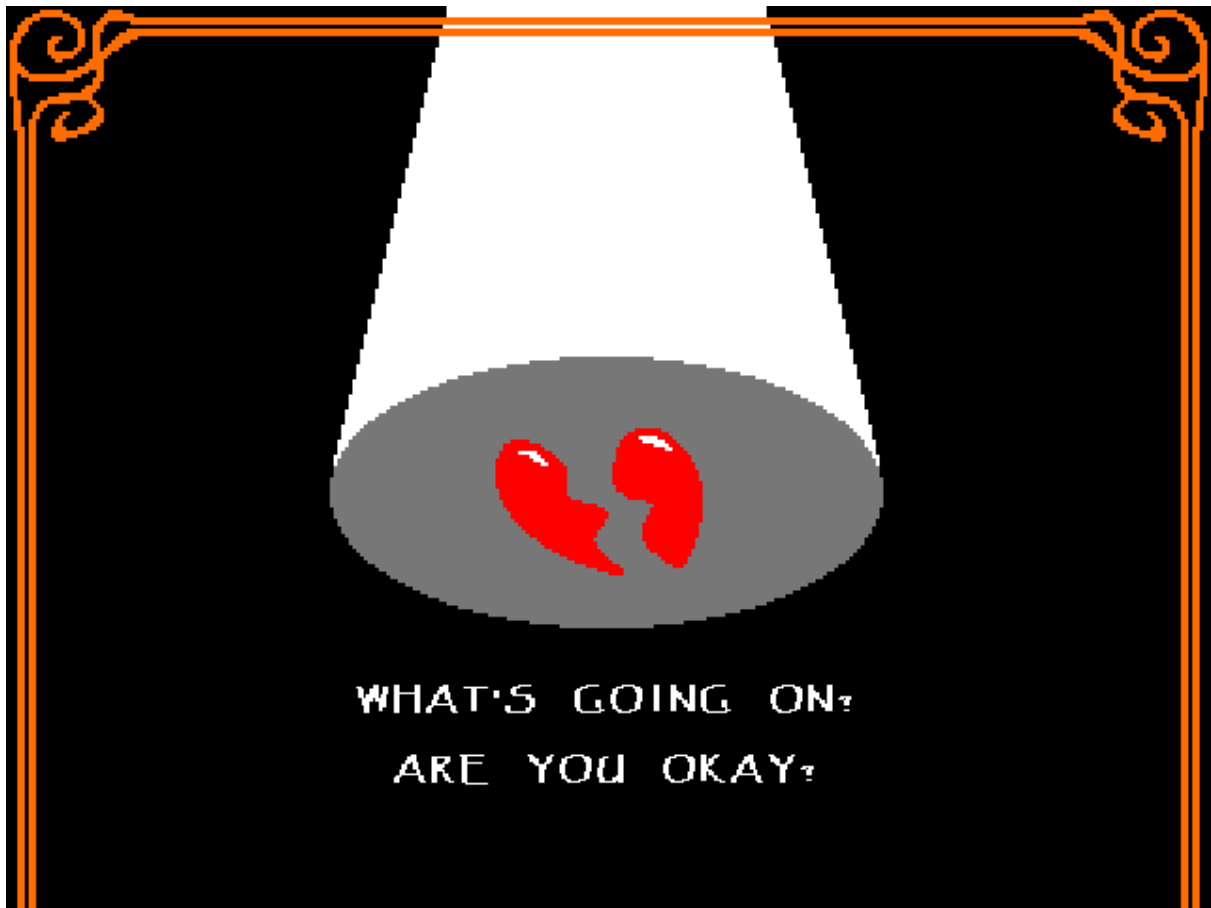
파피루스가 드리무어 가로 가라는 말은 했지만 아래쪽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 프리스크가 새로운 길을 따라 내려간다. 플레이어는 조종할 수 없게 되고 컷신이 재생된다.



Mamar 님의 컷신 패널입니다







Voltra 님의 게임 오버 장면입니다

무슨 일이야? 괜찮아?



자 일어나.

그냥 포기하기엔 넌 너무 위대하잖아!

프리스크가 파피루스의 집 앞으로 리로드한다.

방금은... 오싹했다. 두 번 다시 그러지 말자.

게임에서 최초로 사망하면 상기의 대사가 뜬다.

프리스크가 다시 한 번 집으로 들어간다.



: 바로 이쪽이야 인간. 네 식-



: 엄청 괴로워 보이는 표정이잖아. 괜찮아?



: 앉아야 하겠어? 저기에 따뜻한 식사와 괜찮은 의자가 기다리고 있어.

파피루스는 프리스크가 먼저 방을 들어갈 때까지 기다린다. 만약 프리스크가 다른 곳을 둘러보려고 한다면 아래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 아니, 거기 말고. 바로 여기야. 이쪽으로 와.

프리스크가 주방으로 들어가고 파피루스가 그를 의자까지 데려다 준다.



: 자, 이제 좀 나아졌어?



: 필요하다면 의자에서 원하는 만큼 있으면서 쉬어.



: 이제 더이상 지체 않고… !

전과 같은 장면이 계속된다. 같은 장면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넘기기로 한다.

프리스크가 집을 나서서 옛 집을 거쳐 드리무어 가에 도착한다.

집 앞마당은 이미 묘사했으니 생략하도록 한다. 프리스크가 드리무어 가의 옛 저택으로 들어간다. 프리스크 앞에는 흠이 곳곳에 난 양탄자가 있는 계단이 있다. 왼쪽과 오른쪽에는 출입구가 하나씩 나 있다.

프리스크가 왼쪽으로 가서 거실로 들어간다. 거실에는 북쪽으로 가는 문과, 편안한 의지와, 재가 쌓인 벽난로와, 책장과, 식사용 의자가 두 개 딸린 탁자가 있다.

프리크가 책장을 조사한다.

책 두 권이 나머지 사이에서 삐죽 나왔다. 어느 것을 읽을까??

* “괴물의 지하 적응사 제 1권”

- “괴물의 특성: 우리는 무엇으로 위대(들)해지는가 제 2권”

이 두꺼운 역사책이 무섭게 느껴진다.

약간의 노력을 들여서, 이 벽돌같은 책을 꺼내들고 첫 장을 펼쳤다.

“결계 뒤에 갇힌 상황에 씁쓸함을 느끼며, 우리는 산을 파내려갔다.

물을 찾기 위해 팠으며, 작물을 기르기 위해 팠으며, 고통을 잊기 위해 팠다.

고통의 샘에서 꽤 멀어졌다. 우리에게는 더이상 왕이 군림하지 않는다. 우리가 패배하도록 놔 둔 어느 아둔한 자가 있을 뿐이다.

마침내 우리는 거대한 동굴을 파냈고, 그곳은 시간이 흘러 최초의 도시인, 집의 심장이 되었다.

불분명한 혈통의 왕이 선출되었다. 그가 전임자보다는 낫기를 희망하며.

오래 지나지 않아 우리는 결국 행복의 샘을 찾았다.”

이상하게도 일부 장이 헤져 떨어져나갔다. 잘됐군.

- “괴물의 지하 적응사 제 1권”

* “괴물의 특성: 우리는 무엇으로 위대(들)해지는가 제 2권”

‘보스 몬스터’ 절로 넘겼다.

“모든 괴물에게는 종족마다 흥미로운 특성이 있지만, 보스 몬스터라고 알려진 종족이 군계일학이다.

불과 다른 플라즈마 기반 마법에 전문인 이들은 외모와 기술만을 보면 평범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영혼은 어떠한 괴물보다도 훨씬 강력하며, 심지어 몸 밖에 노출되어도 몇 초나 생존할 수 있다.

이러한 영혼의 강력함으로 이들의 노화 과정에 매력적인 부수적 효과가 존재한다.

다른 괴물들은 적절히 대우받는다는 가정 하에 수 세기동안 생존하지만, 보스 몬스터는 천년이 넘게도 살 수 있다는 고대의 문헌이 존재한다.

그 이유는 바로 보스 몬스터는 오직 살아있는 부모나 아이가 있어야만 성장하기 때문이다.

이 기이함의 원인은 현재로선 불명이나, 이들의 영혼이 성장하려면 그들의 가족과 마법을 통해 연결되어야 한다는 가설이 지지받고 있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 이 특징이 참혹한 역효과를 가진다는 사실이 보여졌다.”

갑자기 책을 덮었다. 책읽기는 이제 충분하다.

프리스크가 벽난로를 조사한다.

지금은 싸늘하다. 오랫동안 누구도 불을 놓지 않았다.

프리스크가 편안한 의자를 조사한다.

오랫동안 누구도 여기 앉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이렇게나 완벽한 의자를 이런 식으로 낭비하다니.

프리스크가 다음 방인 주방으로 이동한다. 여기에는 냉장고와, 싱크대와, 스토브와, 방 구석에 있는 쓰레기통이 있다.

프리스크가 냉장고를 조사한다.

뼈만 남았군. 썩지는 않았겠으니 누군가 다 가져갔을 것이다.

누가 가져갔지? 잘 모르겠다.

프리스크가 싱크대를 조사한다.

보통의 싱크대다. 특별할 것은 없다.

하지만 자세히 살핀다면 배수구 주변에 길잃은 흰색 털이 보일 것이다.

프리스크가 스토브를 조사한다.

거의 쓰지 않은 것 같다. 스토브 주인은 분명 불 마법을 즐겨 쓰겠군.

프리스크가 쓰레기통을 조사한다.

비었다, 꼭 이 집 같다.

프리스크가 방을 나가 안방 오른쪽으로 돌아간다, 그러자 기다란 복도가 나타난다. 복도에는 문 두개와, 거울이 있고, 복도 곳곳에 놓여진 꽃병 몇 개도 보인다. 한 꽃병에만 꽃이 꽂혀 있다.

프리스크가 빈 꽃병을 조사한다.

화려하고, 길쭉하고, 잘 생겼다. 하지만 안쪽에는 아무 물건도 없다. 엄청난 낭비군.

프리스크가 꽃이 든 꽃병을 조사한다.

이제 누가 꽃병에 강아지풀을 꽂아 넣을까? 말 그대로 외로워 보이는 꽃이다.

적어도 다른 풀을 더해서 꽃을 돋보이게 하자.

프리스크가 거울을 조사한다.

숨 막히도록 아름다운 용모의 형체가 눈 앞에 나타나-

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당신이다!

프리스크가 첫 번째 침실로 간다. 방은 굉장히 더럽고 침대가 너무 많아서 바닥에 발 디딜 틈이 거의 없다. 방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으므로 프리스크는 그중 한 침대를 조사한다.

보통은 '이 방이 누구 것이지?'라고 물을 것이다.

이 방이 누구의 것이 아니었는지 묻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프리스크가 방을 나서서 두 번째 침실로 들어간다. 거대한 침대가 방의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고, 그 발밑에는 양탄자가 있다. 이밖에 황폐한 책상과, 약간 열린 빈 옷장과, 빈 트로피 케이스가 있다.

프리스크가 거대한 침대를 조사한다.

이제 이 침대는 꺾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은 식었다니 아쉽군.

프리스크가 황폐한 책상을 조사한다.

한때는 위대한 작품이 여기서 만들어졌다. 이제 기억만이 남았을 뿐이다.

프리스크가 옷장을 조사한다.

아무것도 없다. 한때는 옷도 인기가 있었겠지만, 이 근처에서 제대로 옷을 입는 사람은 파피루스밖에 없다.

게다가 여기 있는 옷은 파피루스에겐 맞지 않는다. 너무 크다.

프리스크가 트로피 케이스를 조사한다.

한때 트로피를 세워 놓던 곳에는 작은 동그라미만 남았을 뿐이다. 꽤나 오랜 시간이 흘렀을 것이다.

프리스크가 방을 떠나서 계단을 내려가 안방으로 들어간다. 보라색 복도가 펼쳐지고 저 멀리 끝에 파피루스가 보인다.



: 아, 다행이야. 왔구나.



: 오지 않을까봐 걱정되려던 참이었거든.



: 따라와 인간.

파피루스가 북쪽에 있는 다음 문으로 들어간다. 프리스크가 떠나려고 하는데 그때-



: 네가 이러는 거 생각을 좀 해봐야 해. 따라. 와.

파피루스가 재촉해서 프리스크는 떠날 수 없다. 따라서 프리스크는 또다른 보라색 복도를 향해
앞으로 간다.



: 널 쫓아내려는 내가 달갑지 않다는 건 나도 알아.



: 그래도... 괜찮아. 난 이미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게 지겨워졌어.



: 별로 소용이 없더라고.



: 안 먹혔던 계획을 다시 쓸 의미는 없잖아.

프리스크가 계속 직진하여 또다른 보라색 복도에 다다른다.



: 난 쓰고 싶지만. 네가 여기 남았으면 좋겠어.



: 이 세상이 이상적이었다면 일이 그렇게 됐겠지.



: 하지만 여긴 그렇지 않아.



: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점은 달라지지 않았어.

프리스크가 덩굴로 뒤덮인 거대한 하늘색 및 보라색 문으로 들어간다. 파피루스가 가운데 서서
프리스크를 돌아보고 있다.



: 인간...



: 저 밖에 지하에는 뭐가 있는지 알아?



: 괴물 패거리가 돌아다녀. 선동당한 무리들이지.



: 불신과 분노에 눈이 먼 자들이야.



: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패거리를 피해야 해. 절대로 싸우려고 하지 마.



: 하지만, 그 자들 때문에 네가 싸움에 휘말린다면 반격해선 안돼.



: 모든 일을 평화적으로 풀려고 노력해야 해.



: 네게... 네게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걸 내게 보여줄 수 있겠어?



: 나의 마지막 시험이 될 거야.



: 해보자. 옛날이랑 똑같네.

[◀ 소개로 돌아가기](#)

[◀ 이전 편](#)

[다음 편 ▶](#)